

01 교회소식

참사랑과 믿음을 전하는 책

이재록 목사의 영성이 깨어나는 시 모음 『고백』, 책자 발간과 함께 우림북이 '인도 뉴델리 국제 도서전'에 참가한 소식을 전한다.

02 생명의 말씀

빛을 좇아 오나니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 지켜 행하며 사명을 귀히 여기고, 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좋은 천국에 이른다.

03 기획특집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해외에서도 행복하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 프랑스 폴리주 성도와 일본 최윤영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23호 2014년 3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모음, 『고백』 발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가슴을 적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2014년 축복의 해, 새봄을 맞아 이재록 목사의 아흔두 번째 저서 『고백』이 발간됐다. 깊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알려 주신 고백 100편을 모은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성경 당시로 돌아간 듯한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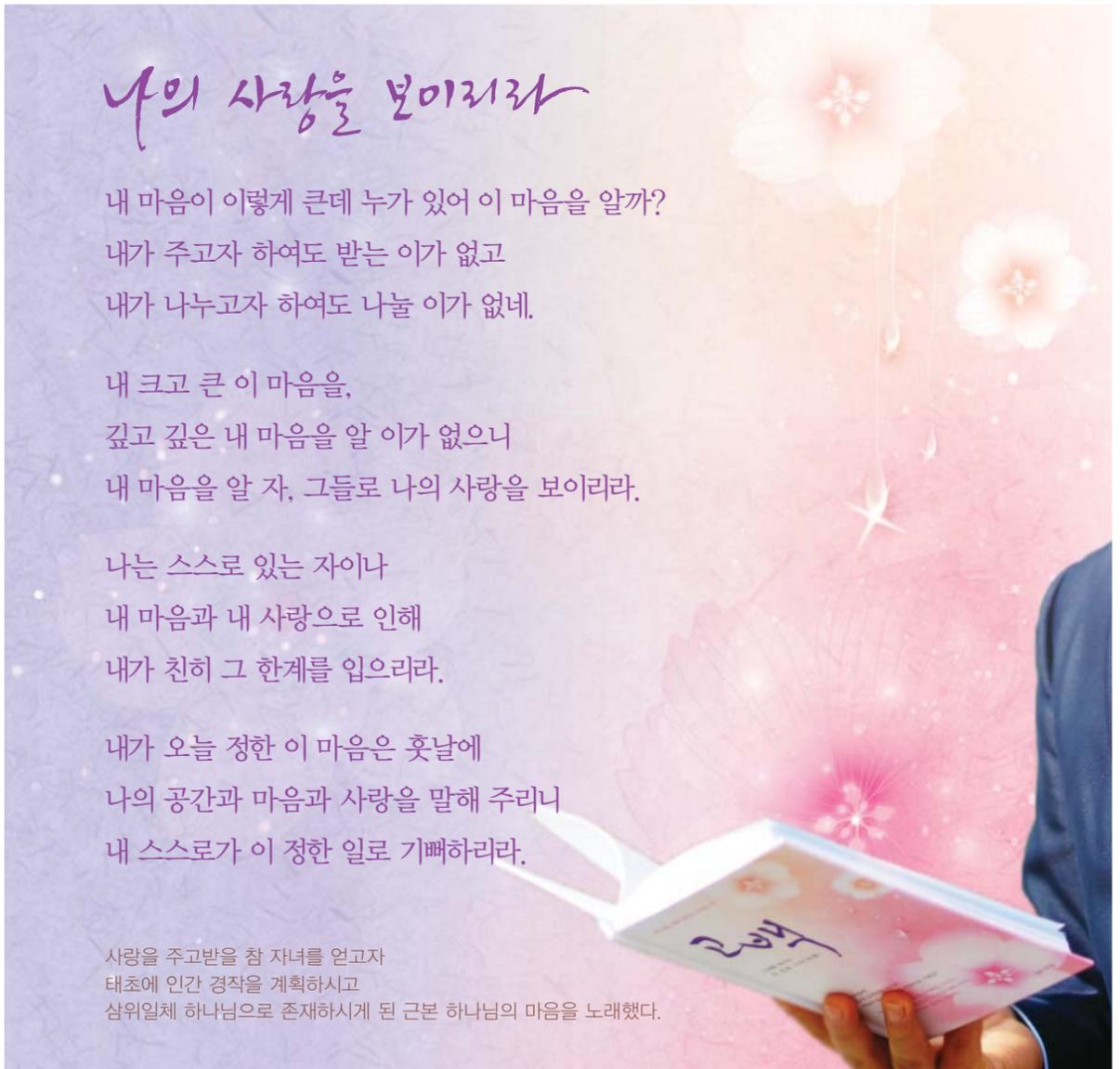
저자인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자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 『십자가의 도』, 『천국』 등 90여 권의 책자를 57개 언어로 번역해 문서선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뉴욕,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한 세계적 부흥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백』은 영성이 깨어나는 시 모음으로, 1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편에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구약 시대에 사역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담겨 있다. 오랜 염원과 소망을 담아 사람을 지으셔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2부 '나의 신앙 되신 주님' 편에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고백을 비롯해 주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의 고백 일부가 실려 있다.

마지막 3부 '아버지, 주님, 나' 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그리워하며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수록돼 있다.

전 세계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림북에서 제작 출판한 이 책은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과 우림북(www.urimbooks.com)에서 예약판매하고 있다. 3월 10일경부터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 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예스 24, 알라딘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의 사랑을 보이리라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누가 있어 이 마음을 알까?
내가 주고자 하여도 받는 이가 없고
내가 나누고자 하여도 나눌 이가 없네.

내 크고 큰 이 마음을,
깊고 깊은 내 마음을 알 이가 없으니
내 마음을 알 자, 그들로 나의 사랑을 보이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내 마음과 내 사랑으로 인해
내가 친히 그 한계를 입으리라.

내가 오늘 정한 이 마음은 훗날에
나의 공간과 마음과 사랑을 말해 주리니
내 스스로가 이 정한 일로 기뻐하리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고자
태초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된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다.



▲ 개막 연설하는 인도 프라남 무커지 대통령
▲ 우림북 부스를 방문한 인도 국립 도서재단 M.A. 시칸다 디렉터, 우림북 대표 노경태 장로, 팔람 라주 인도 인력자원개발부 연방장관(왼쪽부터).

기독교출판사 우림북, '인도 뉴델리 국제 도서전' 참가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 메이단에서 '2014 인도 뉴델리 국제 도서전'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프라남 무커지 인도 대통령과 찬드레쉬 쿠마리 문화부장관을 비롯한 인도 및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을 출판, 유통하는 우림북(대표 노경태 장로)도 참가했다.

우림북 부스에는 힌디어, 타밀어, 텔레구어, 편잡어, 오디아어, 탕굴어, 심테어 등 인도 현지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비롯해 56개 언어로 출판된 스테디셀러 『십자가의 도』를 전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힌디어판 『십자가의 도』와 『지옥』이 방문객의 큰 관심을 얻었고, 영어판 『깨어라 이스라엘』은 전량 매진됐다.

또한 팔람 라주 인도 인력자원개발부 연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우림북 부스를 방문했다. 인도 국립 도서관장 라젠드라 꾸마르 박사는 이재록 목사의 주요 저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다고 요청해 기증을 약속했다.

이번 뉴델리 국제 도서전을 통해 지틴 프라사다 인도 인력자원개발부 국무장관과 인도 문서 선교에 협력 사항을 협의했으며, 인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 인디아'(www.amazon.in)를 비롯, 현지 출판·유통업체 및 전자책 관련업체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도 전역 기독교 서점에 유통하는 MSS 서점, 일반 서점 KK를 통해 힌디어판 『십자가의 도』, 『지옥』을 비롯한 이재록 목사의 저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21)

빛을 좇아 오나니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태초부터 빛으로 계신 근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빛’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좋아지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지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19편 9~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2)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즐겁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요일 5:3).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예배드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십일조나 감사예물도 마지 못해 역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

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성도들 모임 장소로 내주어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게 했지요.

이때 이들 부부가 얼마나 충성 되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쁜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지요(롬 16:4).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합니다.

4)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명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지요. 이처럼 정녕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마 5:11~12).

2. 빛을 좇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거하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 들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벧전 2:9).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에게

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열두 진주문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열두 기초석을 이루는 열두 보석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12는 ‘빛의 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과 기초석이 12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 빛으로 나온 사람, 곧 성결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신속히 어둠에 속한 비진리를 모두 버리고 열심히 진리를 좇아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둠을 좇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해 구원을 받았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가게 되지요.

또한 성결을 이루고 빛의 사람이 될수록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 3:17). 더구나 빛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므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해 날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을 좇아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부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공요철차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다시예배가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39~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리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기도하는 자세와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의 응답을 받아 기쁨을 해결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중심의 기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히 11:19).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녀, 건강, 부와 명예 등 모든 축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원망과 불평을 한다. 또한 믿는다고 했다가도 의심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믿음이 말갛아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약 1:6~8).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념이나 피곤, 졸음의 틈탈 수 없으니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창 3:19).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꿋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시험 환난이 물러가는 등 문제가 해결된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성령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갖는 데에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곧 행함이 따르는 영적 믿음이다. 이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막 11:24) 하신 말씀처럼 응답의 확신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믿음이 성장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함께하시며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쌓아 가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 죄를 싸워 버리며 진리대로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곧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막 16:17~18) 역사가 온전히 임한다.

목적 있는 기도!

어떤 일에 목적이 분명하면 일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며 더 빨리 성취한다. 반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므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회의가 와서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진리 가운데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약속하셨다(요일 3:21~22).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더욱 간절하고 인내로 기도하게 된다. 나아가 계명을 지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할 것이 없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다. 정녕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나라의 상급됨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섬기는 교회와 목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교회와 목자와 영혼들을 위해 올려 드리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기도이다. 즉 마음에 온전히 영적 사랑이 임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변화와 축복의 기회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기간: 2014년 3월 3일 ~ 4월 13일 장소: 만민중앙교회 본당 및 각 성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3 March 2014.3.2~3.8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공부잘하는 비결 5-9
- 십자가의 도 11-15
- 요한계시록 강해 1
- 믿음의 분량 25-27
- 창세기 강해 66-70
- 천국 12-16 • 지옥 1-2
- 우리 삶의 등불 6-8

GCN TV 설교

- 성경 속에 사는 교회 [이수진 목사]
- 마음의 향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11 [이희선 목사]
- 새 예루살렘 1-2 / 생명수 3 [신동초 목사]
- 모든 것에 사랑으로 2 [김수정 목사]
- 소원 [이재정 교육전도사]
-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관규 장로]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6-17
- 찬양드러요 16-1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6-17
- 향기 17 • English 8-9
- 플로리스트 1-2
- 아름다운 예배 9
- 찬양과 경배(3) 70-76, 100-101

해외성회 프로그램

- 뉴욕연합대성회 3
- 회상 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영혼들에게 전하니 행복합니다”



풍리주 성도 (프랑스 파리)



저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화교입니다. 2011년부터 집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작년 초, 콜롬비아에서 20여 일간 머물면서 어느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당회장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과 무안 단물(출 15:25)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저의 10년 된 고혈압을 당회장님의 시공기를 초월한 기도로 치료받은 것을 간증하며 당회장님의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한 여 성도가 엔라쎬 방송에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골반이 틀어져 무릎을 굽힐 수 없었으며 걸을 때 오른쪽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지요. 성경공부 모임에 모인 성도들은 제게 이 여 성도를 위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요청하니 성령의 감동함이 임했습니다. 마침 제가 당회장님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능력을 불러 넣어주신 기도 내용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습니

다. 이에 힘입어 저는 마음 속으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제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고자 하나이다. 부디 이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이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통성 기도를 시킨 뒤 핸드폰에 중국어로 저장해 놓은 당회장님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어 그 성도의 아픈 부위에 무안단물을 뿌려 주었지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그 여 성도가 허리를 숙였다 펴며, 무릎을 굽혀 보더니 정상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원형무지개가 30분간 따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것 같아 매우 행복했습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온 류정화 자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당회장님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를 시청할 것을 권했지요. 그 뒤 그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자궁근종 수술 후 과다 출혈로 18일, 20일, 27일 세 차례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출혈이 멎지 않았고 저는 그녀에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려 줬지요. 그녀는 2월 2일 새벽,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마치 자궁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와서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피 묻은 거즈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수술 시 사용한 거즈였지요. 그 뒤 그녀는 출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녀는 매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를 읽으며 금요철야예배도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지요. 이처럼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하시고,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잉태의 축복과 함께 태아의 성별까지 바꿔주셨어요”

최윤영 집사 (일본 야마가타만민교회)

저는 1990년, 당시 일본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주재규 장로님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칠삭둥이로 태어나 워낙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데다가 심장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995년 5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류마티즘 관절염을 치료받은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제3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난치병인 진주종 중이염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잉태의 축복까지 받아 세 자녀를 얻었지요.

특히 2000년 1월, 셋째 가영 자매는 임신 6개월째 됐을 때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친정어머니의 염려하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허약한 몸으로 타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째까지 임신한 데다가 딸보다 키우기 힘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임을 확인한 날부터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딸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에 가

서 당회장님께 권능의 기도를 받았습니 다. 마음이 평안했고, 기쁨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지요. 그 뒤 2월경, 과연 초음파 검사 결과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해 5월, 저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가영 자매는 학교 반 대표로서 선생님들의 신임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엔젤글로리 워십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귀한 세 자녀를 주시고 아들을 딸로 바꿔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줄부터 주재규 장로, 최윤영 집사, 뒷줄 장남 주시영 형제, 딸 주가영 자매, 차남 주대영 형제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42625-1537, 010-3771-7970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평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